

2/12/23

설교 말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심

전하는 이: 김순배 목사

말씀: 요한복음 20 장 19-31 절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다(마 28:16-20; 막 16:14-18; 눅 24:36-49)

(요 20:19) ○이 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 20:20)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요 20:21)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요 20:22)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절관주** 창 2:7, 겔 37:9

(요 20:23)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도마가 의심하다

(요 20:24) ○열두 제자 중의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절관주** 요 11:16

(요 20:25)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 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 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절관주** 요 20:20, 막 16:11

(요 20:26)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요 20:27)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절관주** 눅 24:40

(요 20:28)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니이다

(요 20:29)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절관주** 뵤전 1:8

이 책을 기록한 목적

(요 20:30)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²⁾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요 20:31)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안식 후 첫날 새벽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은 곧장 예수님 무덤에 찾아가 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다른 제자들에게도 알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 모두는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 얼마 안 있어 부활하신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당신이 곧 하나님께로
올라가니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하신 말씀도 전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의 생전의 말씀을 기억하며 당신 말씀대로 부활하신 것과
자신들도 따라 부활할 것을 믿고, 세상에 대해 그리고 죽음에 대해 담대해질 법도한데 그렇지
못하고 아직도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을 것을 두려워하여 한 곳에 숨어 문을 닫고 웅기종기 모여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런 제자들에게 친히 찾아 오십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두 번 제자들을 찾아 오셨는데 한 번은 도마를 제외하고 열 제자가 모여 있을
때였고, 또 다른 한 번은 도마를 포함해 열 한 제자가 모여 있을 때였습니다.

안식 후 첫 날 저녁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요 20:19) 이 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저자 사도 요한은 누가와는 달리 제자들이 문을 닫고 모여 있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도 요한 나름의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몸이 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 부활체라는 사실을 부각시키기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자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평강은 유대인들의 박해가 없어진다고 얻을 수 있는 세상적인 평강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얻게 되는 평강입니다.

이 평강은 결코 세상이 줄 수 없으며, 세상이 빼앗아 갈 수도 없습니다.

(요 14:27)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본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누가 복음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자 제자들은 유령이 나타난 줄 알고 무서워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눅 24:36)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눅 24:37)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눅 24:38)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눅 24:39)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 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눅 24:40)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눅 24:41) 그들이 너무 기쁘므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눅 24:42)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눅 24:43)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이 유령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손과 발을 보이시고 또 구운 생선 한 토막도 잡수셨습니다.

제자들은 즉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못 자국 난 손과 창 자국난 옆구리 등 고난의 흔적들을 보고 난 후에야 주님을 알아 볼 수 있었습니다.

(요 20:20)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제자들은 주님이 돌아가시자 목자없는 양이 되어 소망을 잃어버리고 절망하였습니다.

하고 있던 일들도 다 팽개치고 3년 동안 예수님만 믿고 따라 다녔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허무하게 죽어 버리시고 안계시니 앞으로 살 길이 막막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따라 다녔다는 이유로 그들을 잡아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운 나머지 한 곳에 모여 문까지 걸어 잠그고 숨어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죽으신 주님이 나타신 것입니다.

그들의 기쁨은 말로 형용할 수 없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에는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실 때 십자가에 박히신 손과 발의 못자국과 돌아가신 후 로마 군인이 죽음을 확인하느라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 난 옆구리의 창자국이 그대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부활의 몸이 생전의 육신과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십니다.

(요 20:21)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한 번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십니다.

앞에 평강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위로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번의 평강은 제자들이 파송을 받아 복음을 전파할 때 당할 환난에 담대히 맞설 수 있는 근원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당신을 이 땅에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십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은 제자들을 보내심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으셨던 것과 같이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이로써 제자들은 사도로서의 사명을 부여받게 됩니다.

이제 사도로서의 사명을 부여 받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기까지 당신의 사명을 감당하신 것처럼 죽기까지 복음 선포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죽음으로 당신의 사명을 완수한 것처럼 제자들은 생명을 바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완수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은 그들의 사도적인 권위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자각하고 권위의 순결성을 간직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보내셨던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순종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시면서 성령을 불어 넣어 주십니다.

(요 20:22)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 장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흠으로 사람을 빚으신 후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던 장면을 연상케 합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이끌고 마른 뼈로 가득한 골짜기에 가서서 그 마른 뼈들에 생기를 불어 넣으니 마른 뼈들이 살아 일어나 큰 군대가 되었던 장면을 연상케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숨을 불어 넣어 인간을 창조하신 것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어 성령을 주시는 것이 병행을 이루면서, 제자들에게 성령 주심이 새로운 창조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 넣어 빚으신 최초의 인간이 피조된 만물에 대한 책임을 가졌다면, 예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아 새롭게 태어난 사도들은 영적 세계에 대한 책임을 갖습니다.

이로써 제자들은 인간의 지혜나 말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에 의해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부여된 성령은 오순절 날 한 곳에 모여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임하여 폭발적인 능력을 나타내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에 나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 사함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요 20:23)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본절은 제자들에게 인간의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부여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였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와 거부하는 자의 결과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를 사하거나 사하지 않을 권세는 오직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사도들에게는 복음 증거의 사명과 권위가 주어졌습니다.

그러기에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에게는 죄를 용서받는 결과가, 복음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죄가 그대로 남아 심판을 받는 결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같은 의미에서 본질은 사도들이 사람의 죄를 용서하거나 그렇지 않을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편으로는 제자들에게 엄청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사도들이 복음 증거의 사명을 소홀히 하여 누군가 복음을 듣지 못하고 그로 인해 죄 용서를 받지 못하게 된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사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받은 사명은 고귀한 권세인 동시에 엄청난 책임을 수반하고 있습니다.

처음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 오셨을 때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후에 다른 제자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보았다고 말했지만 도마는 믿지 않았습니다.

(요 20:24) 열두 제자 중의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요 20:25)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 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 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는 자신이 직접 예수님의 손에 난 못자국과 옆구리에 난 창자국을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고 했습니다.

손으로 만져 보지 않으면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도마를 위해 예수님은 여드레만에 다시 제자들을 찾아 오십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신 후, 도마에게 당신의 손과 옆구리에 손을 넣어 보라고 하십니다.

(요 20:26)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요 20:27)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주님은 도마의 의심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의 손과 옆구리에 손을 넣어서라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믿어야만 믿는 자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도마는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감동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니이다”라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요 20:28)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니이다

(요 20:29)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도마의 이 심오한 신앙 고백은 사도 요한이 본서를 통해 나타내고자 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사도 요한은 본서를 기록한 목적을 밝힙니다.

(요 20:30)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요 20:31)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본절은 본서의 기록 목적인 동시에 본서의 결론입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이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이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믿어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곧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도마를 가리켜 의심 많은 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뒤돌아 보면 우리도 도마와 다를 바 없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도마와 같이 의심하여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친히 찾아오셔서 당신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가 믿는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된 것이 결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아무 조건이 없고, 다함이 없으며, 그치지 않는 주님의 무한한 사랑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없는 자가 아닌 믿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무한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권리만 누리려 했던 우리의 탐욕과 욕망, 교만과 이기심을 무너뜨리고,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며 살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책임과 의무는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